

해외리포트

중국 사회적기업의 동향과
충청남도의 역할

충남연구원 **송두범** 수석연구위원·충남연구원 **박춘섭** 전임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이홍택** 전임연구원



한중 사회경제 국제세미나 전경

제3회 한중 사회적 경제 국제세미나가 ‘거버넌스·지역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국 상하이교통대학(2017.12.4~12.9)에서 개최 되었다. 이 국제세미나는 지난 2015년 충남연구원과 상하이교통대학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열렸고, 이를 통해 양국 사회적 경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거버넌스, 지역발전, 사회적 경제의 미래’라는 3개 세션, 총 15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상하이 및 항주 지역 사회적기업의 방문을 통해 중국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01
중국 사회적기업의
연구 및 정책 동향

중국의 사회적기업 : 발전, 인증 및 체계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중국에서는 ‘사회기업’이라고 함)가 중국에 도입된 것은 2004년 류지동(刘继同) 교수가 OECD(1999년)에서 발표한 「사회적기업 리포트」의 번역서가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이 번역서가 학자 및 현장조직에 알려지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고, 그 결과 북경 사회적기업 포럼(2004년)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영국 의회의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에 2,200여 명의 중국 사회적기업 리더들이 참여함으로써 중국 사회에 더욱 확산되었고, 2017년에는 학계와 민간으로 구성된 10여개 단체들이 ‘베이징 사회적기업 이니셔티브(Beijing SE Initiative)’를 발표하는 등 민간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첫째, 외국의 사회적기업 개념 적용, 둘째, 민간의 자발적 추진, 셋째, 비영리부문의 주도, 넷째, 대도시에서의 주도이다. 특히 정부에서 인증제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조직인 중국자선회(中国慈展会)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중국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①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것, ②사회변혁의 기회를 식별해낼 수 있을 것 ③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을 지닐 것 ④사회적 목표 지속의 안정성을 지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형을 4개(최우수 사회적기업-우수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관찰 사회적기업)로 차등화 하여 지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까지 중국 자선회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130여 개에 달한다. 중국사회적기업은 10여 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쳐, 최근 2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단계이며, 특히 중국정부의 지원 부족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회적기업은 거대한 사회서비스 수요와 민간조직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그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거버넌스와 사회변화

중국에서 국가관리, 정부관리, 사회관리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최근에는 국가 거버넌스, 사회 거버넌스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부라는 틀 안에 기업과 사회조직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 기업, 사회조직이 교집합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가치는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으로 기존 사회단체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조달받았던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대상자는 빈곤계층과 약자계층 및 특수계층으로 특히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학계에서 사용될 뿐 국가정책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둘째**, 사회적기업은 공공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법률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두 형태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해 무관심한 중앙정부의 영향으로 지방정부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인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민간에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의 사회적기업 정책도입(민간 중심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인증 표준안 개정(현재의 인증제는 인지도가 낮아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 공개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통해 지속가능 기반 마련과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

상하이 사회적기업과 사회혁신

상하이 지역은 상하이 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이 2008년 사회적기업연구센터를 설립한 이후 다양한 사회적기업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발전 기간이 짧고, 조직규모도 작은 상황이다. 상하이 지역에서 2013년까지 비교적 성장이 잘 된 사회적기업은 10개에 불과하며, 매출액 규모도 1억 6천만 원 수준이다. 상하이에서 비영리 조직이 사회적기업 운영 모델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회적기업 운영방식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확장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절충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상하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사례는 ‘상하이 청년 제빵사’이다. 이 기업은 2008년 12명의 프랑스 청년이 상하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랑스식 베이킹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시작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프랑스 협력식품 기업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파티쉐(제빵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국가인증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창업투자자금 운용

중애공익재단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대출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기금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에즈 여관(취업창업학원)에 20만 위안을 투자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사례는, 서안미술관 장애인센터로 농아 학생의 취업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농아의 경우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중애공익재단이 센터를 만들어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농아 대상 취업시장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애재단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재단인 만큼 상환금은 증여 방식으로 받고 있다.

중국의 사회적 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나 이론 연구가 부족한 만큼 다양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BUY for TWO’ 매장 전경

02 중국 사회적기업의 뜨거운 도전

① 버려지는 옷들의 사회적 재활용, 자선마트 ‘BUY for TWO’

BUY for TWO’는 사용하지 않는 새 옷과 장신구, 전자제품 등을 기증 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이 기업은 중국이 처한 문제의 해결, 즉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실현하며,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부 받은 새 상품을 매장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며, 장기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새로운 상품으로 리뉴얼 하거나 다른 취약지역에 기증하고 있다. 상품은 온라인 포털에서 기증하면 택배로 수거하는 구조이며, 매장에도 기부함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상품의 기부는 개인 보다는 기업 등의 대량 기부가 많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 물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새 상품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중국의 문화가 헌 옷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중고물품으로는 사업 활동이 어렵다. 이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여 필요한 일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상품 기획, 판매, 유통, 서비스 등 구체화된 일자리 에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일반인 1명당 장애인 1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나 디자인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사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 기업의 차이점은 첫째, 미국과 영국의 성공사례를 중국의 특색에 맞게 개발 둘째, 물품관리, 제고, 일자리 등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 셋째, 브랜드를 만들어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의 지속적 홍보 넷째, 우수한 인력구조(전원 칭화대 출신) 등이다. 향후에는 소도시나 농촌지역을 타깃으로 하여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장을 설치·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Be Better’ 교육공간 전경

② 착한 경제교육에 대한 고민, ‘Be Better’

‘Be Better’는 상하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착한 경제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상하이 지역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관련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바른 경제활동을 이끌기 위해 이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자아를 찾는 일,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돈이 어떠한 개념인지, 아이들의 권리와 참여는 무엇인지, 어린이 창업은 어떻게 하는지 등 5개 테마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장소와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였다. 도서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아이들과 책을 읽을 수 있으며, 경제교육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이용가능하며, 2020년까지 전국에 50개의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경제와 관련된 보드게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통’이라는 가상의 은행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들끼리 교환할 수 있게 하면서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이 센터는 지역 내 부족한 교육수요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에즈여관(携职旅社)

시에즈여관은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떠난 청년들에게 숙소와 취업알선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창업가는 청년들이 외지에 나가면 가장 어려운 점이 잠잘 곳과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2008년 창업하였다.

시에즈여관은 대학생 등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첫째 날 숙박비는 무료 둘째 날부터는 28위안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대학 및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DB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만 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 영역에서 선도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영역은 숙박, 교육, 일자리 알선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숙박의 경우 하루 28위안 정도이며 방의 수준에 따라 비용 차등이 있는데 청소 혹은 이불 정리를 지원하거나 SNS로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료 투숙도 가능하다. 교육 사업은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예절 등을 교육하는 한편, 대학과 협력하여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습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알선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빅데이터

를 토대로 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3 시사점

시에즈여관은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이어서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기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취업하기까지에 필요한 숙식, 교육, 알선을 사회적기업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델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적기업은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한국이 2007년부터 고민해왔던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와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2억 명에 달하는 노인인구, 8,50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 13.7억 명에 달하는 인구 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는 중국 사회적기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에 비해 비교적 사회적기업의 정책 경험 및 현장사례가 다양한 한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중국에 전파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를 정책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운영해왔던 만큼 그동안 축적되어 온 다양한 노하우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 단순 학술교류가 아닌 현장 주체들과의 교류 확대로 한국 사회적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실제 중국 내 인터뷰에서 많은 사회적기업가들이 한국 사회적기업가들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중 사회적기업가 교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중 사회적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충남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사회적 경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충남연구원의 한중 교류협력 특화상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교류 주체인 상하이교통대학교는 풍부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를 넘어 사회혁신, 거버넌스, 지방자치, 시민사회 등의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로의 확장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중-일 국제세미나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은 사회적 경제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사례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정책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와 현장사례의 벤치마킹이 중요한 만큼 한국-중국-일본으로 확대된 교류협력 관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충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선진사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충남도가 성취한 사회적 경제 정책성과를 충남연구원이 주도하여 중국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교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에즈여관(携职旅社) 전경

